

광주교사들, 학생 민감정보 집적 반발

교육부가 학생상담 내용 등 민감한 정보를 한국교육개발원 서버에 집적화하려는 계획에 대해 광주지역 일선 교사들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사들은 서버 집적을 보류하고 오히려 초·중등교육에 대한 전권을 시·도 교육청에 이양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27일 광주지역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상담학생들의 기초정보를 서버에 기록해 데이터베이스화할 것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지칭으로 시달렸고, 각 시·도교육청은 이를 다시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내려보냈다.

“행정 편의주의…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위반” “초·중등 교육부 권한 교육청에 이양해야”

별도의 보고절차 없이 실시간 실적집계가 가능하고 개별학교의 상담 통계자료를 관리하기가 용이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행정 편의주의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상담내용은 내담자와 상담교사만 알아야 할 민감정보로 정보처리를 통해 모종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불순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고, 백번 양보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민감정보의 집적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도 안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감정보 처리 제한”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23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조·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성생활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교사노조는 특히 교육부를 향해 “초·중등 교육에 관한 정책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은 자제하고 시·도 교육청으로 초·중등 교육에 관한 전권을 조속히 이양하라”고 “그것이 시대정신이고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진북교육청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상담에 관한 민감정보 집적이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고 교육부 지시사항 이행을 일단 보류하고 법을 검토작업에 나선 상태다.

조인호 기자

‘자격증 발급 부실 행정’ 광주대 자체 조사 착수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가 부실한 행정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제때 발급받지 못해 일부 졸업생이 채용이 취소돼 논란이 가운데 학교 측이 자체 조사에 나섰다.

27일 광주대학교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유아교육과 학과사무실이 지난 26일 제출한 소명서를 토대로 단체접수 과정에서 공식 서식과 다른 서류가 제출된 정확한 경위와 보육교사 자격 발급 지연 이유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전·현직 학과장과 학과 사무실에 근무했던 근로장학생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

현재 유아교육과 학과장과 학과 사무실 근무 학생은 새 학기를 맞아 모두 바뀌었다.

대학본부는 자체 진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추후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대 유아교육과는 지난 1월4일 졸업예정자 72명의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서식을 자격 발급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에 접수했지만 공식 서식과 다른 45명의 서류가 반려됐다.

자격증 발급이 지연되면서 어린이집에 취업한 1명의 채용이 취소됐으며 일부 학생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제때 담임교사 등록을 못해 속앓이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행정상 착오였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조인호 기자



경찰과대치중인 노동자들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다.

광주·전남, 日 강제동원 피해접수 3만7556건

시민단체 등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군인, 노무자, 위안부 등으로 끌려간 피해자는 3만7556건이 접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접수·처리 현황자료(2015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광주와 전남지역 강제동원 피해는 총 3만7556건이며 노무동원이 2만654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군무원 동원이 5794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군인 4862건, 위안부 26건, 기타 271건이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4664건이 접수돼 있으며 노무동원 2825건, 군인

912건, 군무원 882건, 위안부 6건 순이다.

광주지역 지자체별로는 북구가 13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산구 1076건, 남구 847건, 서구 686건, 동구 498건이 접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3만2829건의 강제동원 중 노무피해가 2만13715건, 군무원 4912건, 군인 3950건, 위안부 20건이다.

시·군별로는 고흥이 3039건이며 나주 2299건, 해남 2258건, 순천 1996건, 여수 1837건, 완도 1761건, 보성 1649건, 영암 1574건, 영광 1551건, 광양 1550건, 장흥 1479건, 화순 1473건, 곡성 1290건, 장성 1215건, 강진 1157건, 담양 1101건, 구례 1083건, 무안 1058건, 함평 1009건, 진도 991건, 신안 812건, 목포 590건 순이다.

전국적으로 강제동원 피해 인정 건수는 21만8639건이며 유형별로는 노무자 14만8961건, 군무원 3만6702건, 군인 3만2857건이다.

노무동원 피해자 중 7180건은 동원된 현지에서 사망했으며 행방불명 4334건, 후유장애 238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에 참여한 피해자는 1000여명으로 확인돼 전체 노무동원 피해자 14만 8961건에 1%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수십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현재 피해자 대부분은 고령으로 사망했거나 거동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며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남규 기자

취객 때리고 달아난 조폭 1명 추가 구속

시비가 붙은 취객을 때려 다치게 한 뒤 달아났던 폭력조직원이 추가로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시비가 붙은 취객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폭력조직원 A(2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와 함께 폭력을 행사한 폭력조직원 3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하고 다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오전 0시5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취객 B(37)씨 등 2명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병원에서 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4명은 민취한 B씨가 일행이 주치한 처방에 몸을 기대고 서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이들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B씨 일행과 승강이를 벌인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른 3명을 체포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한 뒤 종적을 감췄다가 지난 25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암컷대계 불법 포획·유통 일당 4명 검거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계암컷을 불법 포획·유통하려던 A(35)씨 등 일당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해 12월15일 오전 3시에 흥해읍 앞바다에서 고무보트에 대계암컷 1만700마리(시가 5300여만원 상당)를 신고 들여와 미리 대기하던 처량에 옮겨 유통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현장에서 적발되자 모두 도망쳤지만 해경의 3개월간 끈질긴 수사 끝에 최근 붙잡혔다.

포항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이들에게 대계암컷을 공급한 포획선 공범들을 추적 수사하고 있다.

여사장 술집만 골라 상습 무전취식 50대 구속

충북 음성경찰서는 27일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상습사기)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에 음성군 음성을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뒤 술값 2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주에게 “돈이 없으니 신고를 하든 말든 맘대로 하라”고 횡포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0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여성이 운영 하는 유흥주점만 골라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술만 마시면 이웃 폭행한 50대 구속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7일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일대에서 술에 취해 B(53·여)씨를 때리는 등 8차례에 걸쳐 이웃 주민 4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을 한 혐의도 있다.

남자친구 집 앞에 불지른 20대여성 ‘덜미’

화합에 남자친구 집 앞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제주소방서와 제주시부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1시12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다가구주택 2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조사 결과 이 불은 다가구주택 거주자 A(25)씨의 여자친구인 박모(28·여)씨가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경찰에 “말다툼 후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남자친구의 옷가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불은 지나가는 화생에 의해 진화돼 별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